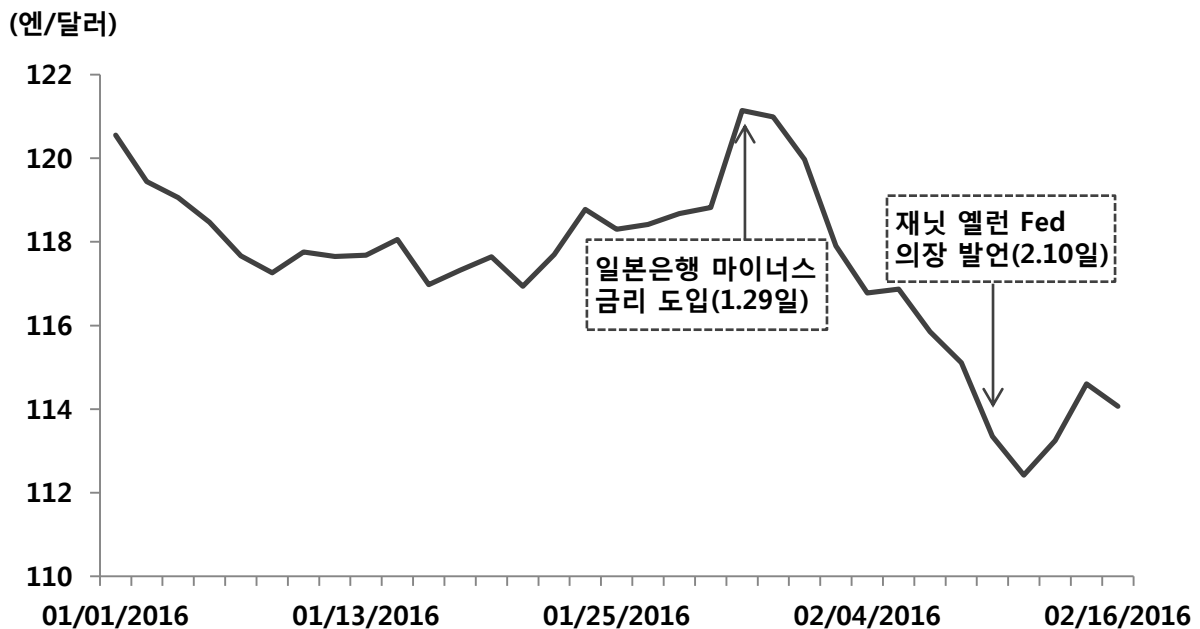


최근 엔화 강세의 배경과 전망

□ 최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가파른 강세가 이어짐

- 일본은행은 연초 이후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엔화가 달러당 120엔 이하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,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결정(2.16일부터 적용)
-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도와는 달리 엔화는 발표당일 달러당 118.82엔에서 121.69엔까지 일시 상승한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(엔화가치 상승)

최근 달러당 엔화 환율 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□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마이너스 금리 발표 당시 선진국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는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오히려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되면서 선진국 주식 매도-엔화자산 매입 현상이 급증
- 또한 지난 2월 10일, 재닛 옐런 Fed 의장의 미국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임
- 이에 달러 약세와 함께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1년 4개월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10.99엔(2.11일)을 기록함

□ 단기적으로 보면 엔화의 향방은 유가,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, 일본 당국의 정책방향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

- 유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높아져 엔화는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
- 또한 일본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까지의 결산을 앞둔 일본 수출기업이 외화를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
- 반면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개입 또는 통화정책 추가완화 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엔화는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음

* 일본은행의 차기 금융정책결정회의 일자 : 3월 15일